車·가전 등 4만개 기업 최대 50% 할인… 내수 불씨 지핀다

중기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삼성·LG·현대차 등 주요기업 참여
지역·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 확대
해외서도 경험할 수 있는 축제 육성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식'이 지난달 31일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일원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중기부

내수 활성화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이 이달 15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코그페 기간 동안엔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전 등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4만여개 기업이 참가해 내수에 불을 지필 예정이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일대에서 코그페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이소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김형동 국회의원,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치헌 안동시 부시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및 관광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코그페 개막식은 최초로 전국 지방정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안동에서 열렸다.

개막식과 함께 옛 안동역 인근 5개 상권에선 할인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했다. 상생콘서트 티켓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2만원 상당의 안동사랑상품권을 환급해 관람객이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동구시장 찜닭축제를 비롯해 중앙신시장과 용상시장 등에선 야시장 운영, 먹거리 행사, 체험 프로그램,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가 펼쳐졌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상생콘서트에서는 가수 송가인과 이찬원을 비롯해 비트펠라하우스, 힛지스, 캔디샵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이소영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안동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안동에서 시작하는 코그페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힘차게 도약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그페를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즐길 수 있고, 해외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올해 코그페는 동행축제(중소벤처기업부), K-세일페스타(산업통상부), 숙박세일페스타(문화체육관광부), 김장재료 할인행사·한우세일(농림축산식품부), 수산대전·수산물 상생대축제(해양수산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관세청), 우체국쇼핑 특가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소비촉진 행사를 통합해 운영한다.

우선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국내 완성 5개사는 중형 세단과 SUV 등 인기 차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가전사도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도 인기 육류와 제철 수산물 등을 최대 50% 할인 또는 '1+1 행사'를 통해 보다 싸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간다.

이외에 백화점, 편의점, 온라인 플랫폼 등도 대거 코그페 행사에 동참한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더욱 촉진하기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도 늘린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수도권은 8→13%, 비수도권은 10→15%, 인구감소지역은 12→17%로 할인율이 각각 높아진다.

강진군·안동시·고령군·천안시·과천시·안산시·가평군·광주시(경기)·제천시·옥천군 등 일부 지방정부는 추가 환급, 발행규모 확대, 구매 한도 상향 등 자체 혜택도 마련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할인율을 7%에서 10%로 높여 판매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자 5600명을 추첨해 총 17억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도 오는 15일까지 운영한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대표 주관사로 참여해 행복한백화점, 동반성장몰, 소담스퀘어, 인천공항 면세점 등을 통해 우수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공영홈쇼핑도 소비 촉진 동참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2000만원 적립 축제'를 진행한다. 또 오는 10일까지 '5% 쿠폰+5% 적립' 혜택도 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LCC, 부산 등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 움직임

겨울철 맞아 해외 여행객 수요 대응
동남아 등 신규 취항·증편 이어져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겨울철을 맞아 지방공항 국제선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동남아 노선의 신규 취항과 증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공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도 늘고 있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관할 공항의 올해 동계시즌 국제선 정기편 운항계획은 주 3206편으로 직전 하계시즌보다 332편(11.6%) 증가했다. 중국 노선은 주 844편으로 17.5%, 동남아 노선은 주 600편으로 32.7% 늘었다.

항공사들의 노선 확대는 부산에서 활발하다. 에어부산은 지난달 25일 부산~가고시마 노선에 주 3회 부정기편 운항을 시작했다. 오는 11일부터 부산~치앙마이 노선을 주 4회 운항하고, 다음 달 2일부터는 부산~광저우 노선을 주 4회 정기편으로 전환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5일 부산~홍콩, 29일 부산~샤먼 노선에 잇달아 취항했다. 다음 달에는 부산~항저우와 청주~샤먼 노선을 개설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5일부터 부산~상하이 노선을 주 4회에서 7회로 늘렸다. 증편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진다. 다음 달 17일에는 부산~마닐라 노선에 주 5회 신규 취항할 예정이다.

겨울 성수기에 맞춘 증편과 외국인 수요 확보도 병행한다. 에어부산은 부산~치앙마이 노선을 다음 달 2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주 4회에서 6회로 늘린다. 이스타항공의 부산~홍콩 노선은 첫 운항편에서 외국인 승객 비중이 83%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취항한 인천~홍콩 노선의 평균 탑승률도 약 90%다. 이스타항공은 부산 노선에서도 현지 수요를 공략해 안정적인 탑승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지방공항에서도 국제선 운항망이 넓어진다. 청주공항은 샤먼 등 중국 노선 신설로 취항지를 다변화한다. 대구공항은 상하이·삿포로·오사카 노선을 증편하고 지난 9월 취항한 장자제 노선도 동계 운항을 이어간다.

외국인 입국 수요도 늘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1~9월 김해·제주·청주·대구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약 32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했다. 공항별 증가율은 청주 59.5%, 김해 47.9%, 제주 27.9%였으며 대구는 0.8%였다.

이들 4개 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은 약 130만명으로 29.4%, 대만인은 약 96만명으로 60.4%, 일본인은 약 45만명으로 43.5% 늘었다.

국제선 확대를 위한 운항 여건도 개선됐다. 이번 동계 운항계획에는 김해공항의 시간당 최대 운항 횟수를 27편에서 30편으로, 청주공항은 8편에서 10편으로 늘린 조치가 반영됐다.

/이승혁 기자 sh95@

중기부,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 실태점검

정상적 작동·경영활동 활용 등 확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사업장 1만2000곳을 대상으로 활용 실태를 점검한다. 기술 활용에 어려움 있는 소상공인 대상 사후관리 제공도 이루어진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2일부터 시작하는 점검은 정부 지원으로 보급한 스마트기술이 소상공인 영업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경영활동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아울러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후관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선 조사원이 지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스마트기술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영업 현장에서의 실제 활용 여부 ▲기기 사용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기기 고장이나 작동 이상이 확인되면 공급기업과 연계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사용 방법 미숙 등으로 기기 활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추가 교육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선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급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설치·작동 상태와 현장 활용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스마트기술은 단순히 매장에 설치하는 것만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실제 영업 현장에서 계속 활용할 때 경영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현장 점검을 통해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스마트기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YG의 카톡 car talk

폭스바겐 'ID.5'

넉넉한 공간·충분한 가속성능 갖춰


폭스바겐 쿠페형 순수 전기 SUV ID.5.

폭스바겐이 국내 시장에 ID.4에 이어 두 번째로 출시한 순수 전기차인 ID.5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를 기반으로 한 쿠페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세련된 디자인과 전기차 특유의 민첩한 반응을 앞세운 모델이다. 최근 서울 복잡한 도심과 경기 파주 헤이리 등을 주행하며 차량의 성능을 경험했다.

우선 ID.5는 전장과 전폭, 전고는 각각 4600㎜, 1850㎜, 1620㎜다. 2765㎜의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쿠페형 디자인에도 실내는 여유롭다. 2열 공간 역시 성인이 탑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549L로, 2열 시트를 접으면 최대 1561L까지 확장된다. 특히 실내 공간은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디자인과 공간 활용성을 함께 고려한 설계가 돋보인다.

주행 성능은 폭스바겐 특유의 단단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고속 구간에서의 가속 반응은 경쾌하다. 최고출력 286마력, 최대토크 55.6kg·m를 발휘해 운전자가 요구하는 만큼 민첩하게 속도를 끌어올린다. 일상 주행은 물론 추월 상황에서도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편의사양도 강화했다. 12.9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음성인식 기능 'IDA'를 적용해 조작 편의성을 높였으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IQ.드라이브도 탑재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ID.5 Pro 기준 복합 451㎞다.

ID.5는 주행 완성도와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전기 SUV다. 쿠페형 디자인을 원하면서도 넉넉한 공간과 충분한 가속성능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선택지가 될 만하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기아, 주요 차종 할인·구매혜택 확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아반떼·쏘렌토 등 주요 차종에 대한 할인과 구매 혜택을 확대한다.

현대차·기아는 국내 대표 쇼핑 축제인 '2026 K-세일페스타'에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는 12월 31일까지, 기아는 11월 한 달간 주요 차종에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아반떼·그랜저·싼타페 등을 대상으로 할인을 진행한다. 제네시스 G80과 GV70에도 특별 구매 혜택이 주어진다.

기아는 11월 신차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16개 차종, 총 1만 대를 최대 11% 할인 판매한다. 차종별 최대 할인율은 쏘렌토·타스만 11%, K9·EV6·봉고 EV 10%, 봉고 LPG 9%, 카니발·K5·K8·EV3·EV4·EV9 8%, EV5·PV5 7%, 니로 6%, 스포티지 5%다.

/김승호 기자